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중국 스촨성 광위엔항 신규 개발, 올해 10월 착공 예정-----	2
□ 필리핀 ICTSI, 크로아티아 리에카항 30년 운영권 계약-----	3
□ UBDN + DBSA,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합의-----	4
□ 콜롬비아 Buenaventura항, 5~6단계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성야 연구원(02-2105-2897, sungyakim@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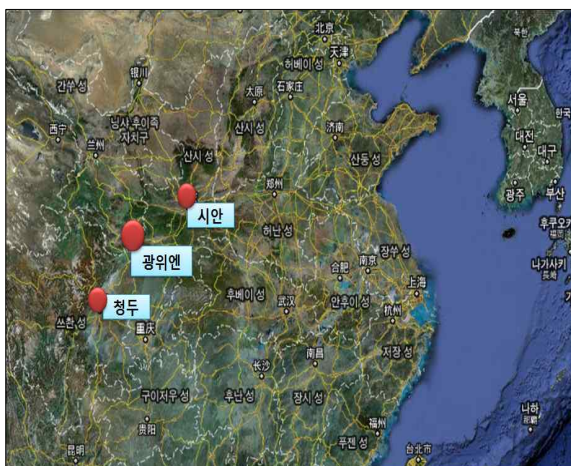
□ 중국 스촨성 광위엔항 신규 개발, 올해 10월 착공 예정

- 중국 스촨(四川)신문에 따르면, 광위엔항(广元港) 개발이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됨
 - 이 계획의 목적은 광위엔항을 개발하여 중국 서북3성(스촨성, 간수성, 산시성)의 해상 출입구를 개척하여 장강과 연결하는데 있음
- 2030년까지 총 55억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처리능력 65만 TEU인 항만을 건설할 계획임
 - 소우화항(昭化港), 리저우항(利州港), 창치항(苍溪港) 등 3개 항만 구역으로 구분하여 약 196km를 건설할 계획임
 - 소우화항 및 리저우항은 육해 복합운송, 컨테이너 환적, 벌크 및 잡화 화물 처리·보관 등 기능 수행
 - 리저우항은 관광, 생활 유람 및 도시 발전에 필요한 벌크 및 잡화 화물 운송 등 기능 수행
- 10월에 착공될 1단계 사업은 소우화항 홍옌(红岩) 및 장자빠(张家坝) 구역을 개발하게 됨
 - 1단계의 총 투자액은 12억 위안, 4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 화물처리능력 300만 톤이상,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10만 TEU를 예상하고 있음
 - 아울러, 2020년에는 화물 처리능력 900만 톤, 컨테이너 처리능력 30만 TEU를 예상함
- 광위엔시 당국은 광위엔항 건설이 시의 도시계획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광위엔시의 조선 산업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위엔시는 2009년 4월 광위엔항개발계획을 수립 및 광위엔항개발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2010년 8월,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광위엔항개발계획”을 비준하였음

<광위엔시 위치>



<광위엔항 계획도>



자료: <http://www.newssc.org/> 2011. 3. 8. / <http://www.gyxww.cn/> 2011. 3. 8./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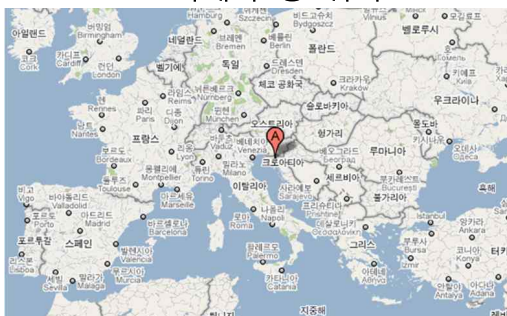
□ 필리핀 ICTSI, 크로아티아 리에카항 30년 운영권 계약

- 필리핀 기반의 세계 20위권 항만운영사인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가 크로아티아 리에카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관리, 운영 및 개발에 관한 30년 운영권을 획득하였음
 - ICTSI의 리에카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 획득은 현 Bradjica Container Terminal의 운영사인 Adriatic Gate Container Terminal(AGCT)의 지분 51%를 1,500만 유로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AGCT의 지분인수 계약자는 ICTSI에서 100%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ICTSI Capital BV와 AGCT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크로아티아 최대의 항만물류기업인 Luka Rijeka(LR)이었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지분구조는 ICTSI 51%, LR 49%로 변경되었음
 - ICTSI는 LR과 함께 각종 항만하역 장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선석길이 330m 확장(수심 14.5m)에 투자하여 브라디카 터미널의 연간처리능력을 60만 TEU로 증대할 계획임
- 리에카 항은 KMI의 '동유럽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2008.4.)'에서 브라디카 2단계 상부시설 건설 및 운영 시 경상 IRR 13.06%(운영기간 30년 기준)로 분석된 바 있으며, 2009년 12만 TEU를 처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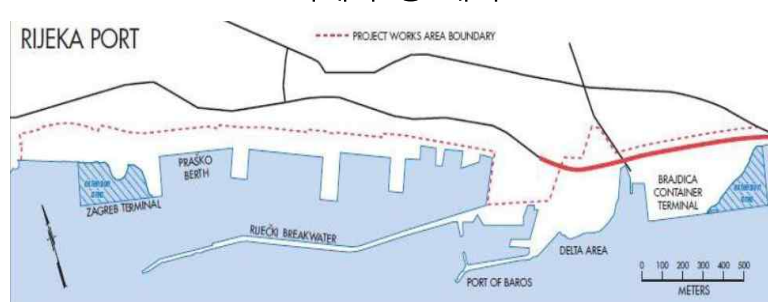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 리에카항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컨테이너 물동량 (TEU)	76,258	94,390	145,040	168,761	122,700
전년대비 증감율	25%	24%	54%	16%	-27%

<리에카 항 위치>



<리에카 항 배치도>



자료 : <http://www.pse.com.ph>, 2011.3.7., 2011.3.10. / <http://www.ictsi.com>, 2011.3.7 / www.cargosystems.net, 2011.3.8.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UBDN + DBSA,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 합의

- 나이지리아 지역개발은행(Urban Development Bank of Nigeria Plc)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outh Africa)은 두 나라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합의
 - 이번 합의를 통해 진행될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나이지리아에 집중될 예정이며, 사업은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통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
 - 이와 같이 나이지리아에 대한 인프라개발 사업이 집중된 이유는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물류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열악한 기존시설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임
-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두 은행은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의 공동 진행과 더불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간의 경제, 기술 및 지식공유를 촉진시키는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두 은행은 합의문에서 인프라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조달, 자금운용, 입찰에 대한 관리, 평가 및 협상 등 기술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가 파견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도 명시

자료 : CI-online. 2011. 3. 7.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콜롬비아 Buenaventura항, 5~6단계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 2007년 Buenaventura항만청(Sociedad portuaria Regional de Buenaventura: SPRB)은 2034년까지의 8단계 Buenaventura 항만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의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장비설치 1억 7,500만 달러, 인프라시설 2억 1,500만 달러, 물류시설 6천만 달러 등으로 구성됨
 - 이를 통해 Buenaventura항은 2032년에 2,700만 톤의 처리능력을 달성할 계획임
- 항만 개발 계획 중, 2011-2012년은 5~6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동기간 SPRB는 1억 2천만 달러를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임
 - 기존 액체부두, 일반부두, 벌크부두의 수심을 15m로 증심하는 사업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및 전자기보안시스템 등 설치 사업도 진행될 예정임
- Buenaventura항은 항만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항만 효율 증대 및 콜롬비아 무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계획은 2014년 파나마운하 공사 완료로 인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Buenaventura 항 현대화 사업 예정지>

자료: www.sprbun.com(Buenaventura항만청)/ www.maritimoportuario.cl, 2011. 3. 11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